

장일범의 클래식 세상만사



“플라시도 도밍고 되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스페인 사람이다. 그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세 카레스,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함께 '쓰리 테너 콘서트'를 결성, 월드컵이 열리는 해마다 결승전이 열리는 도시에서 공연 하며 세계의 청중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주인공이었다.

그보다 앞서 1980년대 컨츄리 팝가수 존 덴버와 최초로 성악과 팝이 만나는 곡인 '페인스 러브'로 크로스오버 성악의 문을 열어젖힌 성악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를 이렇게 대중성만 추구하는 가수로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큰 오산이다.

도밍고의 음악인생에 있어서 이런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작업은 매우 작은 부분이다. 그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빙국립오페라, 런던 로열오페라, 밀라노 라 스칼라,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등 전세계 최고의 오페라극장에서 수십년간 가장 멋지고 능률하며 연기력 뛰어난 테너로 대활약을 펼쳤으며, 현재에도 도밍고의 활약은 현재 진행형이다.

일명 '쓰리 테너' 중에서 도밍고는 카레스나 파바로티와는 다른 종류의 성악가다. 원래 그는 테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리톤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조연 역할이 많은 바리톤만 부르기 위해 그는 너무나 주인공처럼, 왕자처럼 잘 생겼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9년에 멕시코 국립오페라단의 오디션에 바리톤으로 응모했지만 오페라단에서는 테너 곡을 불러보라고 했고, 그는 테너로 뽑혔다. 그래서 그는 노력 끝에 음을 끌어올려 훌륭하게 테너가 된 인물이었다.

1961년에 그는 드디어 몬테레이에서 올려진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에 테너 주인공 알프레도 역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다. 웃나에 용도가 수려하고, 키도 187cm로 훌륭하고, 목소리가 대중해서 당시 작고 땅딸막한 체격의 소유자들이 대부분일 때 헤싱같이 나타난 젊은 테너 도밍고의 존재는 경이로운 것 같았지만 그에 필적할 만한 테너는 없었다.

드디어 프랑코 코렐리처럼 잘생기고 늘씬한 테너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도밍고에게는 파바로티처럼 천부적인 태어난 시원한

베르디의 '시몬 보카네그라'와 '라 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역을 베트오페라에서 불렀으며 올해 여름에는 베로나 야외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베르디의 '나부코'에 도전해 베르디 바리톤으로서 족적을 남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이자 예술가인 도밍고, 그가 승승장구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 그의 성공은 온화한 품성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놀라운 친화력으로 자신과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을 화합하게 만드는 그는 메트오페라의 경비원이나 청소부들의 이름은 물론 아이들의 이름까지도 모두와 안부를 묻는다고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는 일이 많고, 바쁜 예술가가 이렇게 극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니 모두들 그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빼어난 실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 예술계를 움직이는 거인. 난 도밍고와 같은 한국 음악가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음악평론가·KBS클래식FM '장일범의 가정음악' MC>

종교칼럼

스님 사주 볼 줄 아세요



종 서
화엄사 수도암 주지

스님으로 살면서 가장 황당할 때는 "스님 사주 볼 줄 아세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다.

신도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사주나 관상 등을 물을 때 스님들은 공부를 하거나 도를 수 행해 도를 얻으면 미래를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

작금에는 불교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많다고 하며, 더러는 사주 등을 봐주는 스님들이 있다고 한다. 나는 대한 불교 조계종 소속된 스님이다. 지금까지 스님으로 교육을 받아 오면서 사주나 관상 등에 대한 교육은 받지 못했다.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궁금해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다. 더군다나 어려운 일, 큰 일을 하려 할 때는 더욱더 노심초사

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조건과 관계 속에서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닌가. 흔히 하는 말로 물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생성된 물질이라고 한다. 이렇듯 모든 문제는 물질만이 아닌 인관 관계 속에서 사실의 생성과 변화, 조건과 관계가 서로 맞아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고 말한다.

조건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말일 것이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유명한 수학 강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먼저, '무엇이 될 것인가' 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남보다 우수하고 뛰어난 수학 실력을 얻게 되고 그는 수학 강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특별한 미래가 있거나 사주팔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주나 관상에 신경 쓸 이유가 없고, 또 스님이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수행을 통해서 미래를 알거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등 초능력을 얻는다면 그래서 도를 깨달은 사람이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런 도인은 없는 것이다.

수행을 해서 얻은 것은 이치를 아는 것으로, 즉 모든 것은 조건과 관계에 의해 생성, 변화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즉 수행은 전지전능한 초능력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경에서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의 행동 한 모습이요,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의 행동과 말과 생각,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한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앤드 있는 것이 아닐까?

기고

하늘의 선물, 빗물의 재탄생



강영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흰경연구부장

지구 온난화로 북극이나 만년설뿐 아니라 남극의 얼음까지 녹아 금세기 말이면 뉴욕 같은 수변도시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와 더불어 여름철만 되면 흥수로 인한 자연재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농경시대에 가뭄으로 농사가 어려워질 때 왕의 부덕의 소치라 여겨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던 빗물이 언제부턴가 재앙의 요소가 되고 있다.

빗물은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물이다. 옛날에는 쳐마 밑에서 항아리로 빗물을 받아 마시고 세수도 하고

도 일반이 공감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빗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빗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불투수면을 줄여야 한다. 도심에서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된 지역 중 일부 지역을 빗물의 투수가 가능한 보도블럭이나 잔디, 나무 등 녹지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는 잔디나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권장하고 지원책을 강구해 불투수면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 빗물 저장 공간을 늘리고 '빗물세'를 도입해 재ervoir로 활용한다. 도심 대형 건물 등에 대형 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주택단지에 공동 빗물저장조를 설치한다.

불투수면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빗물세를 부과해 옥상녹화 등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투수층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이용한다.

셋째, 빗물관리의 개념과 목표를 대중화하고 빗물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빗물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인의 생활 깊숙이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다. 빗물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늘리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대형 건물이나 일반 주택에까지 빗물저장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효과적인 빗물이용 시스템을 개발해 공급하고 국가에서는 빗물이용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방안을 세부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기존 대상 시설의 범위를 늘리고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빗물을 관리하면 수자원 확보는 물론, 홍수나 가뭄의 빈도를 줄일 수 있고, 하수처리장의 오염을 감소시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빗물관리는 우리의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실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질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의 삶 속에 빗물이 '하늘의 선물'이라는 축복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 기대한다.

각오를 다지며 힘과 용기를 얻을 것이다.

농촌의 교육·의료·교통·환경이 안 좋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각 자치단체가 나서서 농촌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 농민 자녀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용형 멘토링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런 노력이 조직적으로 잘 운영되는 자치단체야 달리 바랄 게 없으나 그렇지 못한 시군의 농촌 출신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멀찌씨 펌들려가며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향의 후배들을 만나 하심단회하게 고민도

들어주고, 장래 희망도 함께 얘기 나누면 학생들은 더욱 큰 힘을 얻을 것이다.

먼 험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새싹을 가꾸는 심정으로 멘토를 실시한다는 게 농촌 멘토의 기본 이념이다.

농촌 어린이들에게 명문 대학에 다니는 고향 형과 누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농촌 어린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일이다.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농촌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줄

▲윤현숙·순천시 인풍동

社說

시교육청, 교장단 선심성 외유 당장 거둬라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초·중·고 교장 전체를 대상으로 선심성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지역 교육계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교장단은 상대로 한 대규모 해외연수는 전례가 있는데도 공무원 연수시 본인이 내야 하는 자부담도 이번에는 아예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여름방학 기간인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관내 유치원 원장과 교장을 대상으로 중국 독립운동 유적지와 백두산 등을 돌아보는 4박 5일 일정의 역사문화연수를 실시한다고 한다. 1인당 150만 원씩 지원해 180명이 다녀온 예정이며, 2억7000만 원의 예산은 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이번에 연수를 가지 못한 교장들은 올해 방학이나 내년에 보낼 계획이어서 전체 소요예산은 5억 원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제정된 '역사문화교육 육성화 조례'와 '동북아 한민족 교육 교류협력 조례'에 따라 교장단 해외연수를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민 생활고 자살·고독사 두고만 볼 건가

광주시 북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는 주민 4명이 최근 50일 사이 잇따라 자살 및 병사를 했다고 한다. 빙곤과 질병에 시달리던 서민들이 희망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고독사 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국유 공유자였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지역사회에 잦은 병리현상이기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 관리사무소가 잇단 죽음을 과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가능할 수 있다. 지난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두 달간 470세대(전체 세대의 28.7%)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9세대가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세대로 분류됐다.

또, 이 아파트에는 기초수급자·장애인·독거노인 등 1640세대가 산다고 한다. 자차 및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현행 복지시스템과 사족을 주제로 예방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에는 이 영구임대아파트 외에도 복지사각지대가 수두룩하다. 정부와 자자체는 지금이라도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현실에 맞는 복지시스템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회·종교단체 등 민간부문과 연계해 '위험가정'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해 비극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나주에는 선남선녀의 인연과 관련된 전설이 두가지 전해져 오고 있다. 영산강을 따라 구진포에서 영산포로 가는길에 보면 오른편으로 '양암바위'라는 깎아지는 절벽이 있다. 삼국시대에 걸친 슬픈 사랑 이야기가 어린 곳이다.

양암바위를 사이에 두고 진부촌과 택촌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어느날 택촌에 사는 아랑사라는 어부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건너편에 서려 있다. 오씨가 목마른 왕건에게 체하지 않도록 버들잎을 퍼워줘 인연을 맺은 곳이다. 왕건과 결혼한 오씨는 자신의 아들 무가 고려 2대 왕 혼이 되었는데 장화왕후가 됐다.

선남선녀의 인연이 1000년이 지나 재현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미흔 남녀와 나주지역 처녀·총각들이 1박2일간 완사천 등 나주의 문화유적을 둘러보면서 소중한 인연맺기에 나섰다. 나주시가 혁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08년부터 1년에 1회씩 마련하는 행사로 이번이 6회째다.

지난 3월에는 이 행사로 만난 서울 노총각과 나주 처녀가 결혼에 끝이 끊어졌다. 구례군에서 선남선녀가 맺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인 듯 싶다. 구례군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불길한 정조로 여긴 진부촌 청년들은 둘을 강제로 데려온다. 정조는 2008년부터 1년에 1회씩 마련하는 행사로 이번이 6회째다. 지난 3월에는 이 행사로 만난 서울 노총각과 나주 처녀가 결혼에 끝이 끊어졌다. 구례군에서 선남선녀가 맺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인 듯 싶다.

/정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 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창립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자치·구(구동신천·대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경제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문화체육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치부 2200-612 체육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서부 2200-536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부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6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

</